

# 해방 후 민족문학과 비평교육의 과제

임경순\*

## 1. 민족문학론의 비평교육적 인식

문학비평의 교육적 위상에 대한 논의는 여러 논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바 있다. 문학교육이 문학텍스트의 이해, 감상, 평가의 능력을 길러주는 데 있다는 점에서 문학교육에서의 문학비평적 시각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으며,<sup>1)</sup> 문학교육을 넓은 의미에서의 비평행위라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문학교육에서 비평행위의 중요성을 논의하기도 하였다.<sup>2)</sup> 그리고 이러한 견해에 힘입어 한국 비평사를 문학교육의 장에 끌어오으로써 비평텍스트를 보는 관점과 비평텍스트를 생산하는 관점을 제시한 바도 있다.<sup>3)</sup> 또한 문학 작품 읽기 전략으로서의 문학비평이나 김남천 비평을 예로 들어 비평 활동의 의미를 논의한 바도 있다.<sup>4)</sup> 이상의 논의들은 문학교육과

---

\* 서울대학교 국어교육연구소 선임연구원

1)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1998.

2) 우한용, 「소설교육의 기본구도」, 『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3) 줄고, 「비평교육에 대한 일 고찰」, 『신청어문』 제25집, 서울대국어교육과, 1997.

4) 김성진, 「문학 작품 읽기 전략으로서의 비평에 대한 시론」, 『문학교육학』 제9호, 2002.

문학비평의 관련성을 인식하고 비평교육의 실천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비평일반을 어떻게 가르치고 배울 수 있겠는가 하는 점에 대한 설득력 있는 논구가 필요하다는 지적<sup>5)</sup>을 볼 때 좀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들을 참고하여 우리 근·현대문예비평사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민족문학론을 해방 이후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그 비평교육적 과제는 무엇인지를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 근·현대비평사에 있어서 민족문학은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어 왔다. 그만큼 우리 비평사에 있어서 민족문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하겠다. 그러나 민족문학이 무엇을 일컫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한 실정이다.

민족문학을 회의적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민족이란 소재 내지는 주제적 측면을 일컫는 것으로 '민족'이 지닌 미학적 형식이 명료하지 않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민족문학에 대한 논의는 리얼리즘, 특히 전형론 등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때문에 독자적인 미학 원리가 부재함으로써 그 독자성이 의심된다고 비판받아 왔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은 이론이나 개념이 형성된 역사성과 그것이 지닌 긍정적인 측면을 간과한 점이 있다. 민족이란 역사와의 관계 속에서 파악되어야 하며, 민족문학이란 바로 그 민족의 삶이 위협받고 위기에 처한 상황에 근거한 것으로, 민족의 현실에 대응하는 주제적 실천 속에서 존립하는 문학이념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미적 형식은 문학과 현실과의 연관을 중시하는 리얼리즘 혹은 현실주의에 근거했던 것이다.

여름.

\_\_\_\_\_, 「문학교육에서 비평 활동에 관한 연구: 비판적 읽기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30호, 2002.

5) 김상욱, 「문학이념과 문학교육」, 『문학교육의 방법』, 한길사, 1991.

민족문화이란 민족의 삶을 억압하는 역사적 상황 즉 개항 이후 식민지 시대의 수난, 외세에 의한 분단과 이념의 대립, 독재 권력에 의한 탄압 속에서 문화가 그러한 역사적 상황에 주목하고 그것을 형상화함으로써 민족의 삶을 도모하는 문화이라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민족문화은 역사성, 억압에 대한 부정성, 유토피아 지향성 등을 속성으로 한다. 그러므로 문화를 존재론적인 차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실천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때 민족문화를 정당하게 바라볼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런데 세계화, 지구촌, 탈이념화, 다원주의 등으로 파악되는 현 시점에서 민족문화를 논의하는 일은 다분히 국수주의적이고 배타적인 인상을 줄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 역사를 보면 해방 이후 여전히 봉건 잔재와 분단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남북 대립으로 인한 민족적 역량의 소모와 그로 인한 우리 민족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우리 민족의 삶을 도모하고, 동아시아 및 세계 평화와 발전을 위해 문화가 할 수 있는 일을 교육적 차원에서 진지하게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문제라 하겠다.

## II. 해방 후 남한에서의 민족문화론 전개 과정

### 1. 해방 직후의 민족문화론

해방 직후는 근대의 민족사적 과제들을 실현할 수 있는 가능성과 제한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던 시대였다. 해방 직후 우리 민족의 최대 과제는 일제 잔재 청산과 자주적 민족국가의 건설에 있었다. 따라서 모든 민족적 역량이 그러한 일에 집중되었다.

문학 역시 그 일에 집단적으로 대응해 나갔는데, 이들이 내건 이념은 민족문학이었다.<sup>6)</sup> 그러나 그들이 속한 집단이나 노선에 따라 세부 내용은 달랐다. 이들을 크게 좌·우파 진영으로 나눌 때, 좌파 문학 운동 단체로 <조선문학건설본부>(1945년 8월 16일 결성),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1945년 9월 17일 결성), 그리고 양 단체를 해소하고 결성한 <조선문학가동맹>(1945년 12월 13일 결성) 등을 들 수 있고, 우파 문학 운동 단체로 <중앙문화협회>(1945년 9월 18일 결성), <전조선문필가협회>(1946년 3월 13일 결성), <조선청년문학가협회>(1946년 4월 4일 결성) 등을 들 수 있다.

임화, 김남천, 이원조 등이 중심이 되어 조직한 <조선문학건설본부>가 내세운 것은 계급이 아니라 민족이었으며 프로문학이 아닌 진보적 민족문학의 건설이었다. <조선문학건설본부>은 조선 혁명의 현단계를 부르조아 민주주의 혁명단계로 규정한 박헌영의 전술에 따라 매관 집단을 제외한 모든 민족 계급은 연합해야 한다는 ‘민족통일전선’을 내세웠다.

<조선문학건설본부> 조직의 주도자이자 핵심 이론가였던 임화는 노동자, 농민, 소부르조아 중심의 민족 연대를 강조했다.<sup>7)</sup> 따라서 임화의 민족문학론의 중심 원리는 민중연대성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임화가 이와 같이 판단한 데는 민주주의 변혁기에는 민중적 연대가 우선 과제로서 프롤레타리아 헤게모니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판단이 작용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임화가 말한 민중연대성의 원리가 어떤 방식으로 미학적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닌다.

이러한 <조선문학건설본부>의 태도에 반발하여 이기영, 한설야, 한효

6) 해방 직후 한국 문학 비평사에서 민족문학론은 문학이론 논의의 핵심이었다. 이 시기 민족문학론은 해방 직전의 세대론, 휴머니즘론과 1920년대 이후 프로문학 이론과 연관되어 있다.

7) 임화, 「문학의 인민적 기초」, 『중앙신문』, 1945.12. 8-14.

등은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을 조직하는데, 이들은 <조선문학건설본부>의 비혁명적 개량주의 노선을 거부하고 프롤레타리아 이데올로기에 입각한 프로문학의 수립이라는 좌파 문학의 원칙을 고수하게 된다.<sup>8)</sup>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의 중앙집행위원으로서 초창기 이 기구를 대표할 만큼 활발하게 이론 활동을 전개한 한효는 문학운동에서 당파성과 계급성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한효는 임화가 강조한 민족문화나 문화의 인민적 기초에 관한 주장은 허식이라 비판하였다.<sup>9)</sup> 그런데 한효 역시 예술가들의 참여를 끌어내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그들을 조직에 끌어들이지 않고, 감화의 대상으로 삼자는 조직의 이중적 운영을 제안하게 된다. 이는 당파성과 계급성을 유지하면서 조직을 유지해 나가자는 의미였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일제하 <카프>가 내세웠던 조직의 선명성과 동반자 작가와 자신들을 차별지으려는 전략과 크게 다르지 않은 현실성이 없는 논리라는 문제를 지닌다.<sup>10)</sup>

두 문학 단체는 그동안 자체 내의 의견 차를 좁혀 <조선문학가동맹>을 결성하게 된다. 이 단체는 앞으로 건설된 문화는 사회주의 혹은 프롤레타리아적인 문화가 아니라 반제·반봉건의 민주주의적 문화라는 점을 강조하여 <조선문학건설본부>의 노선을 따르게 된다.<sup>11)</sup> 이는 좌파 문학

8) 이선영·하정일, 「해방 직후의 민족문학과 근대관」, 『민족문학사연구』 제8호, 민족문학사학회, 1996.

9) 한효, 「예술운동의 전망」, 『예술운동』 창간호, 1945. 12.

10) 한효는 <조선문학가동맹>으로 재편된 이후 문학운동의 방향을 파시즘에 대한 저항으로 정리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주장은 <조선문학가동맹>의 강령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면서, 자신의 기존 입장을 이어가기 위한 출구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한효 등 <조선프롤레타리아문학동맹> 계열 이론가들이 1946년 10월 13일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의 결성과 함께 삼팔선 이북으로 활동 무대를 옮김으로써 <조선문학가동맹> 참여는 일시적 현상에 지나지 않게 되었다. 김영민, 「해방 직후 한국문학비평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78-79쪽.

11) <조선문학가동맹>의 행동 강령은 '일본 제국주의 잔재의 소탕, 봉건주의 잔재의 소탕, 국수주의의 배격, 진보적 민족문학의 건설, 조선문학의 국제문학과의 제휴' 등

운동의 대중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해방 후 우파 문학운동은 1946년에 가서야 <전조선문필가협회>의 결성으로 본격화되는데, 그들은 '진정한 민주주의 문화건설'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운다.<sup>12)</sup> 이어 이후 여기에 소속되어 있던 소장 문인들인 김동리, 조지훈, 서정주 등을 주축으로 1946년 4월 <전조선문필가협회>의 이념을 살리는 전위대 격인 <조선청년문학가협회>를 결성한다. 이들의 민족관은 지역 혹은 혈연 공동체로서의 민족 개념에 가깝다.

우파의 대표적인 이론가 가운데 한 사람인 조연현이 일제 하에서 해방 직후에 이르는 문화 상황을 진단하면서 부르조아 리얼리즘으로부터의 탈피의 과정이라 한 것은 좌파의 이론가들과 일정 부분 시각을 공유한다. 그러나 그는 문학과 정치의 완전한 분리를 주장한다는 점에서 그 대안 모색에서는 좌파와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sup>13)</sup>

또한 민족문학과 연관된 김동리의 순수문학과 휴머니즘에 관한 논의<sup>14)</sup>는 해방 직후뿐 아니라 정부 수립 이후 한국 문학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김동리의 민족문학론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순수문학의 진의」를 통해서이다. 이 글에서 김동리는 민족문학과 순수문학, 휴머니즘을 연결시킨다. 그는 순수문학의 편견을 버리고 휴머니즘과 만나는 순수문학, 민족문학의 길로 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여기서 휴머니즘이란 개성의 자유와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을 말한다. 이른바 제3휴머니즘은

---

으로 되어 있다. 김영민, 앞의 글, 57쪽.

12) 1945년 9월 18일 결성한 <중앙문화협회>는 특정한 이데올로기에 기반을 둔 단체는 아니지만 그 구성원의 성향(이현구, 김진섭, 이하운 등 해외문학과 문화활동의 연장)으로 미루어볼 때 우파적 성향을 띠고 있다.

13) 조연현, 「문학자의 태도」, 『문화창조』 창간호, 1945.12; 「새로운 문학의 방향」, 『예술부락』 창간호, 1946.1.

14) 김동리, 「조선문학의 지표」, 『청년신문』, 1946.4.2;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6.9.15; 「문학하는 것에 대한 사고-문학의 내용(사상적) 기초를 위하여」, 『백민』, 1948.3.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를 동시에 비판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었다.

그러나 휴머니즘이 현실 참여를 부정하는 의미로 쓰이는 한 공허한 주장이라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비판은 당시 김병규나 김동석 등에 의해 제기된 바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리는 참된 의미의 문학은 어떤 구경적인 생의 형식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기에 이른다. 인류에게 공동된 운명을 발견하고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 이것이 구경적 삶이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문학이라는 것이다.<sup>15)</sup> 그러나 문학만이 생의 구경적 형식이 될 수 없으며, 생의 구경적 형식만을 문학이라고 할 수 없다는 비판과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선형적 절대영역으로 인식함으로써 현실과의 역동적 상호작용을 무시한 탈현실적 문학이념이라는 비판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sup>16)</sup>

## 2. 1950년대의 민족문화론

한국비평사에 있어서 해방 직후를 격동기라 하면, 1950년대는 이로부터 새로운 비평사를 위한 길을 모색하는 시기라 할 수 있다. 이 시기에는 해방 직후까지 지속된 우파와 좌파 사이의 이데올로기 논쟁은 사라지고, 여러 문학 논의가 시작된다. 그러나 그것은 이승만 정권의 수립과 한국 전쟁이라는 시대적 맥락을 전제로 한 것이다.

1950년대 민족문화론은 1920년대와 해방직후 민족문화론과도 관련된다. 순수문학론이나 휴머니즘론과의 연계성 속에서 민족문학을 논의하는 것

15) 이후 김동리는 민족문학을 계급투쟁으로서의 민족문학, 민족주의 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 본격문학으로서의 민족문학으로 구분하고, 앞의 두 민족문학은 진정한 민족문학이 될 수 없고, 민족성, 세계성, 영구성이라는 조건을 갖춘 본격문학으로서의 문학만이 진정한 민족문학이라 주장한다. 김동리, 「민족문화론」, 『대조』, 1948.8

16) 김영민, 앞의 글, 90쪽; 하정일, 『분단 자본주의 시대의 민족문학사론』, 소명출판사, 2002, 105쪽.

은 앞 시기의 우파 민족문학론의 성과를 잇는 것이라면, 세계문학을 향한 민족문학론이나 전통의 계승 및 창조, 분단극복을 지향하는 민족문학론은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sup>17)</sup>

1948년 정부 수립 이후 우파 중심의 민족문학론은 한국전쟁과 함께 더욱 공고화된다. 따라서 그러한 시대적 맥락 속에서 민족문학론은 좌파에 대한 비판과 우파에 대한 관심, 나아가 순수문학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진다.

이 시기 김기완, 염상섭, 최일수 등은 민족문학과 리얼리즘의 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 김기완은 민족문학의 특질을 리얼리즘에 입각한 정확한 현실 파악이라 지적하면서, 민족문학을 소재의 다양화를 추구하고 대의와 민족의 강인한 정신을 추구하는 리얼리즘 문학이라 규정한다.<sup>18)</sup> 김기완의 주장은 좌익 문학에 대한 비판을 전제로 한 것이었다. 즉 좌파 이데올로기를 반대하는 문학이 민족문학이었던 것이다. 그의 주장은 당시 우파문학, 민족문학, 순수문학이 연결된 당시 우파 문학의 논리와 상동관계에 있었다. 그러나 이는 도식적이고, 주관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민족문학을 리얼리즘과 관련시킨 염상섭은 민족문학을 주체적 의미가 강한 자국문학이라는 개념으로 사용하였다.<sup>19)</sup> 즉 민족문학을 민족의식을 양양시키고, 민족혼의 새로운 발견과 민족성을 고조·선양시키는 문학이라 본 것이다.

또한 김동리, 염상섭, 최일수, 조연현 등은 민족문학과 세계문학의 관계에 주목한 바 있다. 김동리는 해방 이후 10년 간의 민족문학론을 정리하면서 민족문학의 이상이 별반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진단하였다.<sup>20)</sup> 그간

17) 김영민, 「1950년대 민족문학론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1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227-228쪽.

18) 김기완, 「전쟁과 문학」, 『문예』, 1950.12.

19) 염상섭, 「한국의 현대문학」, 『문예』, 1952.5.

20) 김동리, 「민족문학의 이상과 현실」, 『문화춘추』, 1954.2.



보기에 해방 이후 민족문학론은 계급주의적 민족문학론, 민족주의적 민족문학론, 인간주의적 민족문학론 등이 있다. 마지막 문학론이 해방 이후 김동리가 주장해 오던 문학론으로 휴머니즘론과 연관되어 있다. 그의 인간주의적 민족문학론은 그 보편적 성격으로 말미암아 세계문학과 연계할 수 있었다. 즉 그의 민족문학이 세계문학의 일환으로서의 민족적 개성을 특징으로 하는 문학이라는 점이다. 뒤이어 김동리는 신과 자연의 공존과 조화에 실패한 서양의 휴머니즘을 벗어나 그것의 융화를 바탕으로 한 동양적 휴머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무한과 영원에 통할 수 있는 새로운 휴머니즘의 새로운 인간상의 창조를 휴머니즘 문학의 현대적 과제라 주장한다.<sup>21)</sup>

한편 민족문학과 전통과의 관계를 논의한 정병욱, 전광용, 백철, 최일수 등의 논의도 이 시기 민족문학론의 한 지류를 형성하고 있었다. 이러한 민족문학의 전통론은 한편으로는 민족문학론의 전개 과정 속에서의 자연스런 진전과 당시 모더니즘의 전통부정론에 대한 대응 차원과 관련된 것이다. 이들 논의를 종합해 보면 한국문학에 전통이 있는가 없는가, 전통이라는 개념 문제 등에 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한 나라의 문학을 풍요롭게 하고, 문학사 발전 과정에서 전통이 중요하다는 사실에는 공감하고 있었다. 즉 이 시기 전통론은 과거의 문학 유산 속에 스민 문학 정신을 바탕으로 현시대 한국문학의 발전을 도모하려는데 있었다.<sup>22)</sup>

한편 최일수의 통일지향의 민족문학에 관한 논의는 분단극복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sup>23)</sup> 그는 문학이 지향해야 할 목표는 민족 통일을 구현하기 위한 방향에서 산출되는 새로운 민족정신의 발현이라 주장

21) 김동리, 「휴머니즘의 본질과 과제」, 『현대공론』, 1954.9.

22) 김영민, 앞의 글, 256쪽.

23) 최일수, 「우리 문학의 현대적 방향」, 『자유문학』, 1956.12.

하였다. 즉 분단 극복을 위한 문학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다. 그의 논의는 당대에만 한정되는 논의가 아니라 지금까지도 지속되는 문제라는 점에서 문제성을 지니고 있었다.

요컨대 1950년대 민족문학론의 핵심이 리얼리즘론, 세계문학론, 분단극복론에 있다고 본다면 1970년대 이후 진행된 민족문학론 이 시기에 배태되어 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 3. 1960년대의 민족문학론

1950년대와 1960년대의 파행적 경제발전은 농촌 사회의 황폐화, 광범한 도시빈민층의 창출, 노동현실의 열악화를 초래하였으며, 국가 권력은 그로 인해 파생된 국민의 정치적 불만을 폭력으로 억압했다. 이 같은 사회 현실 속에서 등장한 것이 이른바 순수참여 논쟁이다. 순수참여논쟁은 문학의 사회적 기능을 재인식하고, 이후 민족문학론 전개에 커다란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

1960년도에 김우중, 유중호, 정태용 등의 단초적인 문제제기가 있었지만, 논쟁이 본격화된 것은 김우중이 「파산의 순수문학」(『동아일보』, 1963. 8.7)에서 문학을 순수문학과 등치시키는 견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문학은 당면 현실과 민중의 삶에 마땅히 주목해야 하며, 그런 의미에서 순수와 결별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면서부터다. 이후 김병걸, 김우중 등의 참여론자들과 이형기, 김상일, 원형갑 등의 순수론자들이 부딪히면서, 1960년대 내내 주장과 반론이 거듭되면서 1970년대 초반까지 지속되었다.<sup>24)</sup>

24) 대표적인 논의를 들면 다음과 같다. 김병걸의 「순수와 결별」, 『현대문학』, 1963.10; 김우중, 「저 땅 위에 도표를 세우라」, 『현대문학』, 1964.5; 이형기, 「문학의 기능에 대한 반성」, 『현대문학』, 1964.2. 순수참여론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김윤식, 『한국현

참여론자들은 이 논쟁을 통해 문학의 현실과의 연관성, 사회적 존재로서의 작가를 확인하고, 작가의 현실에 대해 투철한 현실감각과 그를 통한 현실과의 대결을 주장했다. 그러나 그것이 문학의 정치에의 예속을 뜻하지는 않았다.

이에 대해 순수문학론자들은 순수문학도 현실을 외면한 것은 아니라면서 참여문학을 정치에 예속시키는 문학이라 비판하였다. 그러나 이들이 말하는 정치란 좌익적 이데올로기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즉 참여론을 과거 카프나 문학가동맹, 또는 공산주의자로 전제된 사르트르의 참여론에 연결시켰던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이르면, 조동일, 백낙청, 염무웅, 김병걸, 김수영 등이 중심이 되어 『창작과 비평』(1966)이 창간되고, 백낙청의 「시민문학론」 등이 전개되어 리얼리즘을 중심으로 억압적 정치 권력과 산업화의 비인간화에 대응해 나갔다.<sup>25)</sup>

이러한 논의들은 1960년대라는 당시의 역사적 현실에서 우리 문학은 사회현실에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나름대로의 근본적 자세를 표명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 과정을 통해 한국전쟁 이후 민족문학 논의에 대한 관심과 그 이론적 기반으로서의 리얼리즘을 성숙시킬 수 있는 단초를 제공했다는 의의가 있다.

#### 4. 1970년대의 민족문화론

1970년대 들어 한국 사회 경제의 급속한 자본주의적 발전, 그에 따른

---

대문학비평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25) 『창비』 중심의 실천적 참여론과는 다른 한편에는 『산문시대』로 출발하는 김현, 김병익, 이청준 등이 『문학과 지성』을 창간하여 문학에 충실하되 문학의 기능을 통해 간접적인 참여를 모색하는 부류가 있다.

사회 구성체의 내적 모순의 심화, 4·19 이후 민중의식의 성장이 밑거름 되어 민족문학론이 활발하게 논의되기 시작하였다.<sup>26)</sup>

이 시기 민족문학론은 여러 논자들에 의해 논의된 바 있다. 이 시기에 활발하게 활동한 백낙청의 민족문학론의 중심에는 분단 체제의 극복이라는 과제가 놓여 있었다. 그는 분단이란 특수성이 신식민지성을 규정한다고 보고, 분단 극복이 민족문제 해결의 우선 과제임을 강조하였다. 문학은 바로 민중의 억압 구조를 정당화시키는 분단 극복을 지향하여야 할 것 인즉 이것이 곧 민족문학이며, 그 주체는 분단의 가장 큰 피해자인 민중이 되어야 한다고 본 것이다.<sup>27)</sup>

70년대 초를 출발점으로 하는 민중문학은 민중지향적 성격을 지니게 되는 민족문학의 중심을 차지하게 된다. 근대 자본주의 사회에 있어 민중은 노동자 계급을 기본 구성으로 하면서 소생자로서의 농민, 소상공업자와 도시빈민, 그리고 일부 진보적 지식인으로 구성된다.<sup>28)</sup> 민중은 지배받음으로 해서 현상을 부정하고 저항하는 주체로 전환할 수 있는 피지배 계급이며, 미래 전망은 민중에게 잠재된 힘이 현상화됨으로써 획득되는 것이라 주장한다.<sup>29)</sup> 민중을 기반으로 하는 민중문학이란 민중의 생활 감정에 뿌리박은, 민중의 감정 및 사상을 집약·승화시키는데 기여하는 문학이며,<sup>30)</sup> 변화하는 사회적 존재가 되는 민중의 자기표현의 문학적 양식을 의미한다.<sup>31)</sup>

이러한 민족문학론은 『창작과 비평』을 중심으로 염무웅, 임현영, 구중서, 신경림 등의 이론적 노력에 의해 체계화되었으며, 김정환, 황석영, 박

26) 성민엽, 「민중문학의 논리」, 『예술비평』, 1984, 가을.

27)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월간중앙』, 1974.7.

28) 박현채, 「문학과 경제」, 『실천문학』 제4집, 1983, 103-110쪽.

29) 김지하, 「풍자나 자살이나」, 『민중문학론』, 문학과지성사, 1984, 26쪽.

30) 신경림, 「문학과 민중」, 『민중문학론』, 34-35쪽.

31) 박현채, 「민중과 문학」, 『민족, 민중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78쪽.

태순, 천승세, 이문구, 윤홍길, 조세희, 박완서 등의 소설과 김지하, 신경림, 고은, 조태일, 이성부, 정희성, 양성우 등의 시적 성과로 이어졌다.

이 시기 민족문학론의 의의는 첫째, 민족문학론은 자신의 논리를 당대 우리 사회의 구체적인 민족적 현실에 대한 판단에서 구함으로써 리얼리즘이 그 대상으로 하고 있는 현실이 역사구체적인 내용성을 띠게 되었다는 점. 둘째, 민족문학론이 자신의 이념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민중이라는 역동적인 개념을 발견한 점. 셋째, 민족문학론의 제3세계에 대한 관심은 리얼리즘의 인식의 폭을 넓히는 데 기여했다는 점. 즉 제3세계의 문학이 서구 사실주의의 모방만이 아닌 독자적인 리얼리즘을 창조하면서 인간해방의 확대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이다.<sup>32)</sup>

그러나 1970년대 민족문학론은 민중의 생활 현장에서의 일상적인 투쟁과 통일 운동이 어떻게 연관을 맺어나갈 것인가 하는데 대한 구체적인 비전이 없었고, 민중문화 전통의 발전적 계승 문제, 제3세계 문학 등을 민중의 시각에서 주체적으로 평가하는 데 한계가 있었음을 지적할 수 있다.

## 5. 1980년대의 민족문학론

광주 항쟁으로 출발한 1980년대는 노동자, 농민, 도시빈민 등 민중 세력이 급격하게 부상하는 시기이며, 이들의 경향성에 입각한 과학적 이론과 실천이 대두하였다. 1970년대까지 지속되어온 독재 정권의 종말은 새로운 민족적 희망과 과제를 부여하였다. 그러나 '서울의 봄'으로 일컬어지는 그러한 희망은 새로운 집권 세력의 등장으로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되었다.

이 시기의 문학론을 개략적으로 분류하면, 백낙청으로 대표되는 1980년

32) 유문선, 「남한 리얼리즘론의 전개과정」,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사, 1992, 33-34쪽.

대 이래의 민족문학론, 김명인 등의 민중적 민족문학론, 『노동해방문학』의 노동해방문학, 노동자문화예술운동연합의 노동해방문예론, 『녹두꽃』의 민족해방문학론, 『문학과 사회』 그룹 등을 들 수 있다.<sup>33)</sup> 이처럼 현단계 남한 사회 현실을 어떻게 파악하고 어떠한 변혁논리로 대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따라 다양한 의견을 개진해 왔다.<sup>34)</sup>

먼저 1970년대에 이미 민족적 위기의식을 강조하는 민족문학 개념을 주장한 바 있는 백낙청은 「민족문학론의 새로운 과제」(『실천문학』1호, 1980)에서 분단현실의 극복을 지상 과제로 내건 민족문학을 주창하였다. 이는 1970년대 민족문학론에 대한 평가와 함께 민족문학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한 것이었다. 그는 1970년대 민족문학론을 순수 참여 논쟁과 리얼리즘/모더니즘의 대립문제에서 변증법적 지양을 성취하기는 했지만, 민중에 대한 과학적 인식, 지식인과 민중의 관계, 문학운동의 조직 등에서 한계가 있었다고 진단하였다. 그리하여 민족문학의 주체로서의 민중의 역할 강화, 지식인 문필가의 자기 혁신을 통한 민중에의 동화, 문학운동 조직의 강화 등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이 같은 견해는 채광석, 현준만, 이재현, 백진기, 김명인 등의 일련의 민중적 민족문학론으로 새롭게 정립된다. 그들은 민중문화의 주체는 민중이 되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70년대 지식인 중심의 관점과는 다른 시각을 보여주었다.<sup>35)</sup> 채광석이 ‘소시민적 민족문학에서 민중적 민족문학으로’(『개방대학신문』, 1986)라는 슬로건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민중이 주체가

33) 유문선, 앞의 글, 40-41쪽.

34) 유문선은 문학론에 따른 다양한 문학적 방법을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민족문학론-리얼리즘, 민중적 민족문학론-민중적 리얼리즘, 노동해방문학론-노동자계급 현실주의, 노동해방문학론-노동자계급 현실주의, 노동해방문예론-당파적 현실주의, 민족해방문학론-민중적·사회주의적 리얼리즘. 유문선, 앞의 글, 41쪽.

35) 채광석, 『민족문학의 흐름』, 한마당, 1987. 80년대 민족문학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 참조. 임규찬, 「80년대 민족문학 논쟁」, 『작품과 시간』, 소명출판, 2001.

된 자기 표현 문학 양식으로서의 민중문학을 내세웠으며, 김도연은 민중이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장르 확산으로서의 창작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sup>36)</sup> 또한 김명인은 노동하는 생산 대중의 세계관에 민중운동의 당면과제인 반외세, 자주화, 반파쇼 민주화 투쟁을 접맥시켜 지식인 문학의 전위성을 성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sup>37)</sup>

이러한 민중적 민족문학론자들의 논의는 민중에 대한 새로운 인식과 생산대중의 이해관계와의 일치를 통한 입장의 정립, 그리고 실천의 강조로 연결되는 통로를 갖고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체험의 직접적 표현 등을 내세운 것은 경험주의적 편향에 합몰될 위험을 수반하고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sup>38)</sup>

민중적 민족문학론자들에 대하여 『문학과 지성』 계열의 문학론자들은 비판적 입장을 취하였다. 정과리는 민중적 민족문학론자들이 주장하는 핵심인 민중 개념은 언어가 지닌 상징 속에 갇혀 신비화, 이상화되기 쉬운데 민중주의자에게는 상징으로서의 민중과 실체로서의 민중을 분리하여 이념형의 민중만을 향해 치닫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39)</sup> 홍정선은 민중적 문학론자들이 노동자의 주도성만 내세워 계급의 차별성과 그에 따른 역할 분화를 고려하지 않고 문학의 주체는 민중 자신이어야 함을 내세우는 것은 무방향적 경험주의에 불과하다고 비판한 바 있다.<sup>40)</sup>

그러나 이들의 비판 논리가 나름대로 타당성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민중주의에 대한 민족문학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대타의식에 머문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36) 김도연, 「장르 확산을 위하여」, 『민중문학론』, 문학과지성사, 1984.

37) 김명인, 「지식인 문학의 위기와 새로운 민족문학의 구상」, 『민중문학 주체 논쟁』, 청하, 1989.

38) 유문선, 앞의 글, 39쪽.

39) 정과리, 「민중문학론의 인식구조」, 『문학과 사회』, 1988 봄.

40) 홍정선, 「노동문학과 생산주체」, 『노동문학』, 1988.1.

한편 민중적 민족문화와 『문사』파의 다원주의 민족문화론을 비판한 바<sup>41)</sup> 있는 조정환은 민주주의 민족문화론을 주장하게 된다.<sup>42)</sup> 민주주의 민족문화론에서 그는 문화가 우리 사회의 파쇼 권력에 대하여 민중적 입장에서 투쟁 전선에 복무할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주창한 민주주의 민족문화론을 “노동자계급의 강화를 통한 민족민주전선의 강화라는 방법을 취하지 못했던 즉 민족 민주전선의 강화와 노동자계급 지도권 확보를 노동자 계급의 입장에서 통일적으로 파악하지 못했던 것은 소시민적 절충주의를 확연히 떨쳐버리지 못했던 탓”이라 비판하면서 노동해방문학을 주창하게 된다.<sup>43)</sup>

조정환의 논의를 두고 노동자 계급 당파성 곧 노동해방사상이 현실의 노동자계급운동과 결합되는 이념적 미적 원리를 정초함으로써 문학적 방법을 단순한 기법이나 형상화 방법으로 축소시키는 것을 넘어서면서 리얼리즘을 역동적인 차원으로 끌어올릴 수 있었다는 평가가 가능하다. 그러나 이념적이자 동시에 미적 원리로서의 당파성은 형상화 방법에 대한 끊임없는 구체적인 탐구와 모색이 있어야 할진대, 그렇지 못할 경우 문학 형식에 대한 부정부주의적 태도로 전락할 위험을 안고 있었던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sup>44)</sup>

41) 조정환은 민주주의 민족문화론을 두고 객관적 역사성이 결여된 기계론적 반영론에 불과하며, 그들이 주장한 창작 주체의 문제는 노동자에 대한 무한한 숭배의식의 표현 그 이상의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비판한다. 한편 문사파에 대해서 그들이 현단계 한국 사회를 ‘파쇼 군부 독재로부터 아류제국주의로, 형식적 민주주의로의 변화’로 진단한 것에 대해 ‘과학적 논거없는 추측’에 불과 하며, 우리나라 사회구성의 인식민지적 성격, 혹은 세계 자본주의에서의 인식민지적 지위를 무시한 환상적 탈식민화론에 불과하다고 비판하였다.

42) 조정환, 「80년대 문학운동의 새로운 전망-민주주의 민족문화론의 계기」, 『서강』 17집, 1987.6.

43) 조정환, 『민주주의 민족문화론과 자기비판』, 연구사, 1989, 13쪽.

44) 이는 『노동의 새벽』 이후 문학적 성취가 더 이상 진전되지 못함으로써 담보 상태에 빠져 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 Ⅲ. 1990년대 이후 민족문학과 그 비평교육적 과제

민족문학은 역사 속에서 억압된 민족의 현실을 그것이 어떻게 포용하여 민족 전망을 이끌어내느냐에 초점이 놓여 있다. 민족문학론은 민중 계급의 현실적 조건, 경제 성장에 따른 한국 사회의 제반 문제점 등 민족이 처한 현실과 나아갈 길을 문학적 측면에서 모색했다는 긍정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는 역설적이게도 정치적인 억압과 폭력이 민족문학의 위상을 보다 현실적이고 당위적인 것으로 작용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해방 이후 민족문학론은 문학이 할 수 있는 것, 또 해야 하는 것이 자명한 시대의 산물이기도 하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새로운 세기를 맞은 지금 민족문학론은 새로운 도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자본주의 체제가 심화되어가고 후기산업사회적인 면모를 갖추기 시작한 오늘날의 한국에서 '민족문학론'은 낡은 유물처럼 느껴질 수 있다.

1990년대 벽두에 『지혜의 시대를 위하여』에서 백낙청은 분단극복운동을 겸한 우리의 민족민주운동은 여타 제3세계의 민족운동과 다르고, 제3세계적 민족모순이 빠진 분단 독일의 민주화 운동이나 동서 화해 운동과도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민중의 위상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한 적이 있다. 그것은 분단 현실이라는 우리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더욱 복잡해진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백낙청 자신은 의견을 뚜렷하게 개진하고 있지는 않았다.

1990년대 중반에 이르러 민족문학사연구소·민족문학작가회의 공동으로 <민족문학론의 갱신을 위하여>라는 심포지엄을 연 적이 있다.<sup>45)</sup> 이는

45) 여기에 대한 소개는 다음 참조. 구재진, 「민족문학론 화두를 지키기 위하여」, 『민족문학사연구』 제1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8.

1990년대의 새로운 현실 상황, 즉 자본의 힘에 의한 개인의 단자화에 대한 민족문학론의 현실 적합성 문제를 검토하는 자리였다. 진정석은 모더니즘과 리얼리즘을 아우르는 민족문학론으로 나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그는 민족문학=근대문학=리얼리즘으로 도식화, 단순화하는 오류와 함께 아도르노의 시각에 입각한 모더니즘의 미학적 성과를 지나치게 강조한 한계를 드러냈다.<sup>46)</sup> 또한 신승엽은 민중적 현실에 천착하는 민중적 민족문학론을 다시금 확인하였는데, 그러나 그의 주장은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맡길 이념이나 신념·정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속에서 어느 정도 실천력이 있을지 미지수라 생각된다.<sup>47)</sup>

그렇다면 이제 그동안의 민족문학론의 성과와 의미를 점검하고 그 나아갈 방향을 심도 있게 숙고해야 할 때라 판단된다.

앞에서 신승엽은 현 상황을 자신과 자신의 미래를 맡길 이념이나 신념·정신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 진단하였는데, 그 견해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 필자가 서두에서 언급했듯이 민족문학론은 역사성과 현실의 부정성, 그리고 유토피아 지향성이라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민족문학론이 역사의 현실에서 자양분을 삼았듯이 현실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 개인의 단자화에 앞서 정치·경제·문화 전 영역에 걸친 억압과 폭력이 해소되었는가를 묻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sup>48)</sup> 해방 이후 분단 현실의 지속, 세계화로 인한 신식민주의의 가속화

46) 진정석, 「민족문학과 모더니즘」, 『민족문학사연구』 제11집, 민족문학사학회, 1997.

47) “필자는 현재 집단화·주체화를 통한 열린 전망을 갖고 있지 못함을 솔직히 인정한다. 그리고 지금 이곳의 어느 누구, 어느 집단에게도 필자 자신과 필자의 미래를 온전히 기투할 만한 그것을 발견하고 있지 못하다.” 신승엽, 「배수아 소설의 몇 가지 낯설고 불안한 매력」, 『민족문학을 넘어서』, 소명, 2000, 327쪽.

48) 김재용, 「분단 현실의 변화와 민족문학의 모색」, 『실천문학』 제46호, 1999. 여름. 김재용은 민족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새로운 양상으로 바뀌고 있는 데도 작가들이 이 문제에 대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 것은 작가들이 거리를 두고 조망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라 진단한다.

는 우리 삶의 질곡과 개인의 단자화에 작용하는 본질적인 근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과 자본주의를 동시에 극복하고 일국주의적인 운동으로서의 민족문학을 탈피하여 전지구적 민족문학의 연대를 모색하는 속에서 민족문학의 이념을 찾아야 할 것이다.

이는 민족문학의 개념 정립과 관련되어 있다. 이미 천이두가 1970년대 중반 민족문학에 대한 논의를 두고 폐쇄적인 민족주의 범주에 드는 것과 안이한 코스모폴리탄적인 것에 안주하려는 것, 반제·반식민주의 애국 투쟁의 문학으로 분류한 바 있듯이,<sup>49)</sup> 그것은 폐쇄적인 국수주의나, 추상적인 이상주의에 빠지거나, 문학의 정치에의 종속 경향을 넘어서서 민족의 삶을 도모하는 문학으로서의 위치에 민족문학을 정립하는 일이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계화 혹은 자본주의의 전지구화에 의해서 네이션 스테이트(nation state)가 소멸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 각국의 경제가 압박을 당하면 결국은 국가에 의한 보호(재분배)를 요구하고 국가적인 문화적 동일성이나 지역경제 보호 등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sup>50)</sup> 그렇다면 민족문학 안팎에서 제기되는 문제, 즉 ‘민족이라는 개념이 하나의 이데올로기로서 오히려 자국민을 억압하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점은 민족이라는 개념 자체가 지닌 문제점보다 더 심각한 것이다. 따라서 보다 근본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념적 차원을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실천 방법을 모색하는 일도 중요하다. 인간을 물화시키는 자본에 맞서고, 인간의 단자화에 맞서는 당당한 주체를 길러내고, 나아가 그러한 인간의 연대성을 모색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자본주의에 맞서는 것 즉 자본의 무한한 운동에 대항하는 일은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역사를 통해 볼 때, 인간은 늘 실천 가

49) 천이두, 「민족문학의 당면과제」, 『문학과 지성』, 1975. 겨울호.

50) 柄谷行人, 『일본 정신의 기원』, 송태욱 역, imagine, 2003, 46쪽.

능태를 모색해 왔듯이 그것은 결코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다. 가령 통화에 기반을 두긴 하지만 상호 배타적이거나 구속적이지 않은 개인들의 자유로운 계약에 기초한 호혜와 상호부조에 입각한 교환 시스템 같은 것을 상정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sup>51)</sup>

또한 창작방법 차원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함으로써 작품을 통한 민족문학을 실현하는 일도 과제 가운데 하나이다. 그것은 민족문학의 창작방법의 이론적 근거 가운데 하나인 리얼리즘의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는 일이기도 하다. 가령 작품의 실재성 혹은 현실성 문제를 인간의 핵심적 속성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작용하고 그 열정들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발현되는지를 구체적인 관계들 속에서 재현해 내는 일을 이론적으로 모색해 내고 그것을 창작방법으로 구체화하는 일을 모색해 보는 것이다.

문학텍스트를 비평하는데 있어서 비평가의 안목(세계관)에 따라 그 해석과 평가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이는 문학텍스트를 언어적인 형식이나 사회·역사의 반영으로 인식하는 문제와도 관련되어 있다. 왜냐 하면 세계와 작품에 대한 비평가의 관점이야말로 문학텍스트를 인식하는 일과 비평 행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기 때문이다. 가령 우리 비평사에 있어서 같은 문학텍스트를 두고서 전혀 상반된 평가를 내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sup>52)</sup> 물론 비평가의 안목에 따라 문학텍스트를 평가하는 것은

51) 여기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다음 참조 柄谷行人, 앞의 책, 47-48쪽. 이는 다소 추상적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또한 마이클 리튼이 1982년에 고안한 LETS(Local Exchange Trading System)를 고려해 볼 수 있다. LETS는 참가자가 자신의 구좌를 가지고 자신이 제공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올려, 자발적으로 교환하고 그 결과가 구좌에 기록되는 다각적인 결제 시스템이다.

52) 가령 趙砲石의 「낙동강」(『조선지광』 제99호, 1927.7)을 두고서 鄭漢淑이 『現代韓國小說論』(1977)에서 기계적이고도 공식적인 이데올로기의 노예라는 점을 들어 이 작품을 문학적인 자살의 표본이라 평가한바 있으며, 金允植은 『韓國現代文學史論考』(1973)에서 프로문학의 공식성을 탈피하여 작품의 서사성을 잘 살린 20년대 한

나름대로 타당한 근거에 입각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다른 관점을 완전히 배제하고 자족적인 세계에 빠질 때 독단적인 관점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 민족문학론이 그러한 독단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의 비평 행위에 대한 반성과 함께 다른 관점들과의 대화를 통해 생산적인 행위로 나아가야 한다. 구체적인 교수학습 현장에서도 학습자들은 자신의 비평행위와 그 결과에 대하여 반성하고 타자들과 대화를 통해 자신의 비평관을 형성해 갈 수 있어야 한다. 물론 이 과정에서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교사야말로 교수·학습을 이끌어가는 중요한 매개자이기 때문이다. 교사 역시 자신의 비평관이 있기 마련이고, 이에 따라 문חק텍스트를 선정하고 교실에서 그의 관점을 관철해 나갈 수 있다. 그러나 교사가 자신의 관점을 학습자들에게 투사한다면 이 역시 독단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므로 대화와 반성 행위를 통해 비평적 관점을 형성해 가면서 의도하는 목표에 도달하고자 하는 교수학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sup>53)</sup>

또한 대화와 반성으로서의 비평교육은 대항 담론의 생산으로서의 적극적인 비평교육으로 나아가야 한다. 인간의 언어 행위에는 무의식적 과정으로서의 이데올로기가 개입한다. 담론의 주체들은 담론 과정을 통해 담론구성체<sup>54)</sup>와 동일시함으로써 자신의 이데올로기적 입장을 선택하며, 개

---

국소설의 壓卷으로 평가한 바 있다. 자세한 논의는 줄고, 앞의 글 참조.

- 53) 줄고, 앞의 글, 참조. 이 글에서는 자신의 비평적 담론을 유일하게 가능한 것(참된 것, 자연스런 것)으로 내세우며, 그것이 지시하는 실제적 또는 잠재적인 현실 전체와 동일시하는 오류에서 벗어나, 이론의 주체는 이데올로기적 언어 행위에 변증법적인 태도로 의문을 제기하며 자신의 사회적·언어적 입지와 의미적·통사적 처리 방식을 반성하고 나아가 이를 열려 있는 대화의 대상으로 삼는 주체 형성을 비평교육의 지표로 삼아야 한다고 하였다.
- 54) 담론구성체란 이데올로기적 구성체 안에서, 즉 계급투쟁의 상태에 의해 결정된 주어진 국면에서 주어진 입장에서부터 무엇을 말해야 하며,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M. Pêcheux,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H. Nagpal trans., St. Martin's Press, 1982, 111쪽.

인은 담론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구성체 속에서 이데올로기적 주체로 호명되는 것이다.

그러나 주체의 능동적인 역할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폐쇄의 논의에 따르면 이데올로기에 대한 동일시 차원을 넘어서서, 역동일시의 실천 전략이 필요하다. 역동일시(disidentification) 전략이란 자신을 항상 이데올로기적으로 동일시(identification)하려는 대상에 등을 돌리는 반동일시(counteridentification)를 넘어서서 그 대상 안으로 개입해 들어가 그것을 전복하려는 실천 전략을 말한다. 따라서 민족의 생존권에 반하는 어떠한 이데올로기적 호출에도 맞서는 문학적인 대응으로서의 민족문학론은 그러한 전략을 필요로 한다.

제도적 장치로서의 학교는 인간을 길러내는 곳이다. 그런데 대학과 초·중등학교는 사정이 다르다. 초·중등학교는 국가의 이데올로기가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곳이다. 그러나 대학은 원칙적으로 국가의 이데올로기로부터 자유로운 곳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를 길러내는 사범대학은 딜레마에 빠지지 않을 수 없다. 자유와 통제 사이에 놓여 있는 주체들이 교사를 꿈꾸는 학생들이며, 이들은 머지않아 교육을 담당해야 할 주체들이기 때문에 문제의 심각성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논리를 통해 문학텍스트에 접근해 가면서 궁극적으로 비평관을 정립해 나가는 주체를 길러내는 대학에서의 문학비평교육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러나 국어교육과에서의 비평교육이 얼마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져왔는지 살펴볼 때 만족스럽다 못하다. 그러므로 대학에서의 비평교육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sup>55)</sup>

55) 특히 임용고시 체제에 들어서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 것은 사실이다. 왜냐 하면 임용고시가 대학의 교육을 시험 위주로 빠르게 재편성해가고 있으며(특히 교육대학원은 문제가 심각하다), 임용고시에 비평문항이 빠져 있어 문학비평교육은 주변적인 과목으로 전락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단순히 비평교육에만 해당하는 것이

초·중등학교에서의 비평교육은 대학에서의 그것보다 훨씬 열악한 실정이다. 교육과정을 살펴볼 때 비평교육은 대단히 소략하게 다루어져 있다.<sup>56)</sup> 따라서 교육과정에 근거한 교재 역시 그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sup>57)</sup> 교재는 학습자들이 교수·학습 활동에 사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교육의 매체이다. 이런 점에서 문학비평을 다룬 비평 제재나 작품을 이해, 감상, 평가하는 원리로서의 비평교육이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민족문학과 관련해 볼 때, 국어과의 교육과정은 그러한 관점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다. 즉 5차 교육과정 이후 기능교과로서의 국어과 교육이 강화됨으로써 의사소통으로서의 도구 차원을 강조하게 되었다. 또한 내용 항목에 있어서도 가치 중립적인 목표 기술 체계로 되어 있어 표면상으로는 어떠한 이데올로기로부터도 거리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교과서(교재)를 만드는 저자들의 비평교육관(문학교육관)에 의해 다양하게 교재화될 수 있다.<sup>58)</sup> 또한 교과서 외에도 교사는 교실에서 다양한

---

아니다. 대학교육과 임용고시와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검토해야 할 때이다.

- 56) 국민공통기본교육과정의 『국어』 교과서의 문학 영역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 문학에 대한 태도,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문학텍스트의 창작과 수용 중심으로 교육과정이 구성되어 있음을 말해 준다. 심화 선택 과목인 『문학』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 57) 물론 문학비평을 따로 가르치는 것보다 문학텍스트의 창작·수용과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비평교육은 대단히 약화되어 있으며, 또한 교육적인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학텍스트를 비평하는데 필수적인 문학비평텍스트를 제재로서 다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학비평텍스트를 『문학』 교과서의 제재로 다루고 있는 교과서는 11종 가운데 교학사(2편), 디딤돌(1편), 블랙박스(4편), 천재교육(1편) 등 4종에 불과하다. 이는 0.39%에 불과한 것으로 서정 50.76%, 서사 26.49%, 극 6.88%, 교술 12.77%, 가사 2.70% 등과 비교해 보면 대단히 미흡한 것이다. 박기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내용 분석 연구」, 제29회 한국문학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58) 6차 이전에 비해 7차 문학 교과서에서는 월북 작가 및 좌파 문인의 작품이 다수 수록된 것은 문학사의 균형을 찾는 의미에서도 다행스런 일이라 하겠다. 특히 1970-80

교재를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을 통해 동원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육과정, 교과서(교재), 교수학습 방법 등에서 우리 민족의 삶을 도모하는 방향에서 문학교육과 문학비평교육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또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

년대의 민중 문학 계열의 현실참여 작품도 적지 않게 수록되어 순수문학 일변도의 문학 교과서와는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나 우리 문학의 실제 모습을 온전히 살피는 데는 부족한 것도 사실이다.



## 참고 문헌

- 구인환 외, 『문학교육론』, 삼지원, 2001.
- 구재진, 「민족문학론-화두를 지키기 위하여」, 『민족문학사연구』 제12호, 민족문학사연구소, 1998.
- 김동리, 「순수문학의 진의」, 『서울신문』, 1946. 9. 15.
- 김상욱, 「문학이념과 문학교육」, 『문학교육의 방법』, 한길사, 1991.
- 김성진, 「문학교육에서 비평 활동에 관한 연구: 비판적 읽기와와의 관련을 중심으로」, 『국어국문학』 제130호, 2002.
- 김영민, 「1950년대 민족문학론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12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 김영민, 「해방 직후 한국 문학비평사 연구」, 『현대문학이론연구』 제11집, 현대문학이론학회, 1999.
- 김윤식, 『한국현대문학비평사』, 서울대학교출판부, 1982.
- 김재용, 「분단 현실의 변화와 민족문학의 모색」, 『실천문학』 제46호, 1999. 여름.
- 김지하, 「풍자나 자살이나」, 『민중문학론』, 문학과지성사, 1984.
- 박기범, 「제7차 교육과정에 따른 문학 교과서의 내용 분석 연구」, 제29회 한국문학교육학회 학술대회 발표문.
- 박현채, 「민중과 문학」, 『민중, 민중 그리고 문학』, 지양사, 1985.
- 백낙청, 「민족문학 개념의 정립을 위해」, 『월간중앙』, 1974. 7.
- 성민엽, 「민중문학의 논리」, 『예술비평』, 1984. 가을.
- 신승엽, 「배수아 소설의 몇 가지 낯설고 불안한 매력」, 『민족문학을 넘어서』, 소명, 2000.
- 우한용, 「소설교육의 기본구도」, 『소설교육론』, 평민사, 1993.
- 유문선, 「남한 리얼리즘론의 전개과정」, 『다시 문제는 리얼리즘이다』, 실천문학사, 1992.
- 이선영·하정일, 「해방 직후의 민족문학론과 근대관」, 『민족문학사연구』 제8호, 민족문학사학회, 1995.

- 임경순, 「비평교육에 대한 일 고찰」, 『선청어문』 제25집, 서울대국어교육과, 1997.
- 임경순, 『문학의 해석과 문학교육』, 역락, 2003.
- 임규찬, 「80년대 민족문학 논쟁」, 『작품과 시간』, 소명출판, 2001.
- 임 화, 「문학의 인민적 기초」, 『중앙신문』, 1945.12.8-14.
- 조정환, 「80년대 문학운동의 새로운 전망-민주주의 민족문학론의 제기」, 『서강』 17집, 1987.6.
- 조정환, 『민주주의 민족문학론과 자기비판』, 연구사, 1989.
- 진정석, 「민족문학과 모더니즘」, 『민족문학사연구』 제11집, 민족문학사학회, 1997.
- 하정일, 『분단 자본주의 시대의 민족문학사론』, 소명출판사, 2002.
- 柄谷行人, 『일본 정신의 기원』, 송태욱 역, imagine, 2003.
- Pêcheux, M., *Language, Semantics and Ideology*, H. Nagpal trans., St. Martin's Press, 1982.

■ Abstract

National Literary Theory after Liberation(8·15)  
and Tasks of Critical Education

Lim, Kyung-Soon

Many researchers have been studied about National Literary Theory in Korea critical history. But it is also a fact that many researchers have doubts about identification of it. But we are necessary to notice its historicity and positive aspects. Properties of National Literary Theory are historicity, negativity against oppression and pursuit of utopia. Thus because of feudalistic remnants and the tragic division of the Korean peninsula, debates about National Literary Theory will continue. But National Literary Theory has been confronting new situations in acceleration of capitalism and post-industrial society after 1990.

For creative debates of National Literary Theory have got to establish of National Literature concept and global solidarity of National Literature. Also we will try to search practical methods, creative writing strategies, disidentification discourse strategies, reinforcement plans of critical education, and to strengthen National Literature teaching in Korean language education.